

# 『곤지키야샤(金色夜叉)』가 미완으로 남겨진 이유에 관한 연구 - 오자키 코요(尾崎紅葉)의 고민-

한 광 수\*

## 目 次

0. 문제제기
  1. 미완으로 남겨진 『곤지키야샤』
  2. 오자키 코요의 창작 동기
  3. ‘초명치식 여인’ 미야의 숨겨진 욕망 미즈에
  4. 연애지상주의자 강이치의 숨겨진 욕망 오시즈
  5. 열린 구조의 결말을 지니게 된 『곤지키야샤』

## 0. 문제제기

오자키 코요(이하, 코요)의 『곤지키야샤』<sup>1)</sup>는 1897년 1월 1일 「요미우리신문(読

\* 청주대학교, 교수, 일본근현대문학전공

1) 기존에 발표된 「곤지키야샤」의 대충 줄거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중학생(제일고등학교; 현재의 동경대학교 교양학부의 전신)인 하자마 강이치는 일찍이 양친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나면서 부친에게 은혜를 입은 바 있는 시기사(鴨沢) 집안에 임시로 거처하고 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시기사와 미야(宮)와는 장래를 약속한 사이이기도 해서 별다른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지내왔으나, 정월 카루타 모임에서 부호 토미야마 타다츠구(富山唯継)가 미야에게 반해 청혼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한다. 마침내 미야가 그의 청혼을 받아들여 그에게 시집을 가게 되자, 강이치는 아타미(熱海) 해변에서 그녀를 설득하여 토미야마와의 결혼을 막아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미야를 토미야마에게 빼앗긴 강이치는 자포자기의 심경과 원한 맺힌 마음에 고리대금업자의 수족(手代)이 되어 냉혹한 인간으로 변모한다. 한편 미야는 행복하지 못한 결혼생활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 강이치와 재회하게 되고, 그 일이 있은 후 그에게 향한 추억과 연모의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다시 접근한다. 이런 미야를 강이치가 회피하자, 그녀는 편지 공세를 하지만 그는 일체 읽어 보지 않는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강이치는 미

壳新聞)에 연재되기 시작해 1903년 10월 30일 그의 죽음으로 중단되기까지, 장장 6여년에 걸쳐 발표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발표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곤지키야샤」(1897. 1. 1~동년. 2. 23)
  2. 「후편곤지키야샤」(1897. 9. 5~동년. 11. 6)
  3. 「속곤지키야샤」(1898. 1. 14~동년. 4. 1)
  4. 「속속곤지키야샤」(1899. 1. 1~동년. 5. 27)
  5. 「속속곤지키야샤」(1900. 12. 4, 1901. 2. 3~동년. 4. 8)
  6. 「속속곤지키야샤속편」(1902. 4. 1~동년. 5. 11)
  7. 「신속곤지키야샤」(1903. 1~동년. 3)
- \* 「신속곤지키야샤」(「読壳新聞」)에 연재되었던 마지막 3회분은 『신소설』에 중복되어 실렸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곤지키야샤』는 「후편」 이후의 부분이 단속적(斷続的)이면서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 결국 미완성 소설의 형태로 남겨졌다. 본 논문의 목표는 왜 『곤지키야샤』가 미완의 상태로 남겨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관한 이유와 그 과정에서 겪었을 작가 코요의 고민을 살펴보는 데 있다.

## 1. 미완으로 남겨진 『곤지키야샤』

그 동안 『곤지키야샤』가 미완의 상태로 남겨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통설로, 작가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던 측면과 그가 집필 도중 사망했다는 점이 부각되었었다. 물론 이러한 시각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와 더불어 오카타 쿠니하루(尾形国治)라든가 토사 토오루(土佐亨)와 같은 연구자들의 지적, 즉 코요의 작품 구상에 있어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들이 발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곤지키야샤』가 중간에서 끝날 조짐은 이미 작품 구상의 단계부터 내재되었다고 생각한다. 「腹案筋書」에서 작가가 <사랑(愛)> 중심의 세계를 지향하는 측면이 그것이다. 또 「合評」의 발언 가운데 제시된 두 가지 파위에 대한 인식의 애매함이 그것이다. 그리고 부연한다면, 사랑 중심의 세계를 설정하면서 ‘사랑과 황금의 투쟁’의 세계를 동시에 추구하려고 하는 모순 착오가 작가 내부에서 무의식 중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金色夜叉』が中絶に終わる前兆はすでに作品構想の段階からはらま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腹案筋書」における作者の「愛」中心の世界への志向がそれであろう。あるいはまた「合評」発言中の二

야가 자살하는 꿈을 꾸게 된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바꿔 그녀가 보내오는 편지를 읽게 되지만, 해결책이 없는 현실로 인해 마음만 안타까워 할 뿐이다.

つのPOWER認識の不手際である。そしてさらにいえば、愛中心の世界を設定しながら、「愛と黄金との争」の世界を同時に追求するという矛盾錯誤が、作者内部で無意識の中に行なわれていた事実である。<sup>2)</sup>

(나) 이 작품이 햇수로 6년에 걸쳐 「전편」·「중편」·「후편」·「속편」·「속속편」·「신속편」(단행본 조직)으로 편을 이어서 계속 씌어져, 그 사이에 길게는 일 년 반 동안 길게 혹은 짧게 휴필 기간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작가 코요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바가 크지만, 구상 전개와 곡절과도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제작 중 작가 자신의 체험이나 독서, 또는 다른 비평 등의 영향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작가와 연결해 작품론을 진행할 경우, 成立論을 도외시킬 수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장편에 이끌렸던 점 때문에, 성립론을 근거로 작품세계를 전적으로 논의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この作品が足かけ六年にわたって「前編」「中編」「後編」「続」「続々」「新続」(単行本の組織による)と編を次いで書き継がれ、その間に一年半を最長として長短の休筆期間の存する事実である。これは作者紅葉の健康状態にかかわるところが大きいが、構想展開の曲折に関連してもいと推定されるのであり、制作中の作者自身の体験や読書、または他からの批評等の影響を考える必要がある。作品論を作家と結んで進める場合は、成立論を度外視することができない。だが私には、紆余曲折して導かれたこの長編について、成立論を踏まえて作品世界を全的に論ずる用意はまだできていない。<sup>3)</sup>

(가)는 구상의 결함을 전제로, 작품에서 추구되던 두 주제가 하나로 결합되지 못한 문제를 조명했다. (나) 또한 통일을 이루기 어려웠던 구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가)와 (나)는 『곤지키야샤』가 순조롭게 집필되거나 마무리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보류하면서도 작품 구상의 결함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주장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코요가 글쓰기의 목표를 작품의 전 과정에 걸쳐 내재적 통일성을 갖기 어려운 복수(複數)의 구상을 설정했기 때문에 작품의 스토리를 일정한 방향으로 종결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의 발생 가능성은 코요 스스로가 밝혔던 이 작품의 집필 동기에서도 포착할 수 있다.

## 2. 오자키 코요의 창작동기

다음은 코요가 「속속곤지키야샤속편」(1902. 4. 1~동년. 5. 11)을 집필하고 난 그해 6월 29일 「곤지키야샤상중하편합평(金色夜叉上中下篇合評), 이하 합평」 모임에서 밝힌 자신의 작품 「곤지키야샤」에 관한 창작 동기이다.

2) 尾形国治、「尾崎紅葉『金色夜叉』序論」、(『国文学研究』, 早稲田大学 国文学会、1977年10月.) 51項

3) 土佐亨、「『金色夜叉』を軸として」、(『解釈と鑑賞』, 学灯社、1979年10月.) 68-69項

세상에는 대체로 두 가지의 커다란 힘이 사회의 결합을 유지시킨다. 그것은 사랑과 황금이다. 그러나 황금의 세력은 단지 순간에 지나지 않아, 실사 그 힘이 아무리 강렬하다고 할지라도, 그 힘을 영구히 보존해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비해, 사랑은 영구불변하게 인생을 점유한다고 생각한다. 인생을 극히 밀착되게 결합시키는 것은 사랑이다. 나는 그것을 써보고 싶어, 이 편을 기초했다. 하자마 강이치 인신(一身) 자체는 사랑과 황금의 싸움을 구상화시켜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곤지키야샤를 쓰는 데는 또 하나의 동기가 있다. 그것은 내가 명치식(明治式)의 여인을 써보고 싶었다는 점이다. 미야는 바로 이 명치식 여인의 화신인 것이다. 그래서 주인공이 강이치일지라도, 미야를 묘사하게 되는 부분에서는 강이치보다 일정 정도 구상화시키기가 훨씬 쉬웠다. 미야는 명치식의 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녀가 보통의 명치식 여인이라면 부자인 토미야마 부류의 사람에게 시집갔을 때, 그 순간부터 옛날 관계를 버리고 완전히 토미야마 부인이 되어 강이치를 잊어버려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미야로 하여금 초명치식(超明治式) 여인답게 그려낼 작정으로 미야가 후회하는 마음을 가득 갖게 했던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 작품을 쓰려고 했던 동기이다.凡そ人世には二つの大なるPOWERがあつて、社会の結合を保つて居る。それは何だといふと、即ち愛と黄金だ。ところが僕の考では、黄金の勢力は単にMOMENTARYであつて、縦令如何にその力が強烈でも、とても永久にその勢力を保存して行く訳にはいかぬ。ところがそれに反対で、愛は永久不変に人生を支配して居ると思ふ。即ち人生を極めて、密着に結合させて行くのが愛である。そこを書いて見たいと思つて、この篇を草したのである。即ち間貫一の一身は愛と黄金との争を具象的にあらはしたものだ。それから金色夜叉を書くに就いては、今一つの動機がある。それは何だといふと、僕は明治の婦人を書いて見たいと思つたのだ。宮は即ちこの明治式の婦人の権化である。であるから主人公は、貫一であるが、どうしても宮を写す場合になると、貫一よりもいくらか多く具象的になり易い。そこで、宮はかく迄明治式の婦人であるが、これが普通の明治式の婦人なら、富人富山その人の如に嫁したならば、それなりに昔の関係を捨てて、富山の夫人になつて仕舞つて、貫一を見捨てて仕舞ふのであるが、僕は宮をして超明治式の婦人たらしむるつもりで、宮をしてあのやうに悔悟の念さかんならしめたのだ。これが僕の此篇を書いた動機だ。4)

위 글은 『곤지키야샤』에서 강조하려던 코요의 두 가지 집필 동기를 잘 밝혀 준다. 하나는 사회인식의 문제로, 그는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로 황금과 사랑을 들면서, 잘나적인 힘을 갖는 황금보다 인생에서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영구한 가치로서의 사랑을 부각시키려고 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미야를 통해 ‘초명치식 여인’의 모습을 그려내고자 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구상은 필연적으로 작품에 심각한 결합을 갖게 만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사회인식은 남성을 매개로 ‘사랑’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중시 하면서 그와 대응 관계를 갖는 여성을 통해서 ‘초명치’라는 이질적인 시대 가치<sup>5)</sup>를 통합적으로 이루어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4) 「金色夜叉上中下篇合評」(明治三十五年六月二十九日於日本橋具樂部)(「芸文」, 1902, 8 収録) 137-138項

### 3. ‘초명치식 여인’ 미야의 숨겨진 욕망 미츠에

코요는 「합평」에서 ‘보통의 명치식(明治式) 여인이라면 부자인 토미야마와 같은 사람에게 시집을 갔을 때, 그 순간부터 옛날 관계를 버리고 완전히 토미야마 부인이 되어 강이치를 잊어버려야 했다. 그러나 나는 미야로 하여금 초명치식(超明治式) 여인답게 그려낼 작정으로 그녀가 (강이치를 못잊고 - 필자주) 회오하는 마음을 가득 갖도록 했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미야로 하여금 초명치식 여인답게 그려낼 작정으로’란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의 의도는 어디까지나 ‘작정’이었지, 작품의 등장인물로서의 형상을 완성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합평」보다 뒤에 씌어진 「신속곤지키야샤(新続金色夜叉)」등에서도 계속 ‘미야를 초명치식 여인답게 하는’ 작업은 행해지지만, 최종적으로 작품 내용이 완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 ‘초명치식 여인’으로서의 미야 모습은 안개 속 저편에 있는 상태로 남겨져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동안 ‘초명치식 여인’으로서의 미야 모습을 밝혀보려는 많은 문학 연구자들은 ‘미야가 회오하는 마음을 가득 갖도록 했던 것’과 ‘초명치식 여인’으로의 형상화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보려고 노력했다.

사실 「곤지키야샤」의 전편<sup>6)</sup>에서 「곤지키야샤」의 스토리를 끝냈다면, 「합평」에서 코요가 밝힌 바와 같이 미야는 일청전쟁(청일전쟁) 이후 나날이 팽배해 가는 금전을 우선시 하는 사회 풍조에 물들어 ‘몸과 마음을 허락했던 첫사랑<sup>7)</sup>을 버리고 자신의 미모를 이용하여 자산가와 결혼한 ]명치식 여인’으로 불려졌을 것이다. 그러나 코요는 곤지키야샤」의 중편 이하의 스토리에서 미야를 ‘초명치식 여인’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과거의 ‘어리석은 자신<sup>8)</sup>을 ‘회오’하는 미야를 그렸다고 한다. 그것도 단순히 회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편

5) 코요는 ‘초명치식 여인’이란 말을 명치시대 일반인의 상식적인 틀에 담을 수 없는 가치관(결혼관)을 지닌 여인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 같다.

6) 각주1에 정리해 놓은 개략 줄거리를 통해 살펴보면 전편은, ‘~ 강이치는 아타미(熱海) 해변에서 미야를 설득하여 토미야마와의 결혼을 막아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까지의 스토리이다.

7) 彼は終(つひ)に心を許し肌身(はだみ)を許せし初恋(はつこひ)を擲(なげう)ちて、絶痛絶苦の悶々(もんもん)の中(うち)に一生最も楽(たのし)かるべき大禮(だいらい)を挙(あ)げ畢(は)る(をは)んぬ。(後編 2章) 213項

8) 愚なる私の心得違(ごころえちがひ)さへ無御座候(ごさなくさふら)はば、始終(しじゆう)御側(おんそば)にも居り候事(ゐりごうじ)とて、さやうの思立(おもひたち)も御座候節(ごささふらふせつ)に、屹度(きつと)御諫(おんいさ)め申候事も叶(かな)ひ候ものを、返らぬ愚痴(おろそ)ながら私の浅(あ)はかより、みづからの一生(いっせい)を誤(あや)り候のみか、大事(だいじ)の御身(ごみ)までも世(よ)の塵(ちり) (すた)り物(もの)に致(いた)させ候(こう)かと思(おも)ひまゐらせ候(こう)へば、何(なに)と申候(まを)す私の罪(つみ)の程(ほど)かと、今更(いまさら)御申(ごまを)す(おんまを)しわけ)の致(いた)さやうも無(な)之(ぞ) (これなく)、唯(ただ)そら可恐(おそろ)しさに消(く)えも入度(いりた)く存(ぞんじ)まゐらせ候(こう)。(新続編1章) 319項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자신의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가면서, 옛 정인인 강이치에게 다시 접근하며 남편 토미야마 타다즈구(富山唯繼、이하 토미야마)와의 결혼을 ‘회오’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다. 코요는 이러한 미야을 통해 ‘초명치식 여인’이란 캐릭터를 형상화하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코요는 작품 속에서 처절하게 ‘회오’하는 모습의 미야를 묘사를 하면서도 그녀가 강이치를 만나 그에게 자신의 ‘회오’하는 마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강이치에게 밝힐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미야와는 달리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이치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밝히면서 구애하고 있는 인물인 고리대금업자 아카가시 미즈에(赤檉滿枝, 이하 미즈에)를 중편 이하에서 새롭게 등장시키고 있다. 그녀는 적극적인 애정표현을 통해 강이치를 끈질기게 설득한다. 마치 고리대금업자가 채무자를 들볶듯이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강이치를 몰아세우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캐릭터를 지닌 미즈에를 중편 이하에서 등장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그녀의 등장은 「곤지키야샤」의 스토리 전개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1907년 형법 183조에 ‘남편 있는 부인이 간통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sup>9)</sup>란 문구가 들어간 이래 1947년 형법 개정에서 폐지되기까지 일본 사회에서 간통죄가 엄격히 적용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인 「곤지키야샤」가 집필되던 1897~1903년 사이에는 명치유신 이후 혼인법이 상류 무사 계층의 예를 기준으로 하여 변화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신분(華·士族·平民) 간의 통혼이 허락되고, 1873년 5월에는 태정관(太政官)<sup>10)</sup> 포고에 의해 처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어 협의 이혼제도를 시행하는 등 진보적인 정령(政令)이 적용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비록 간통죄가 엄격히 적용하는 시대에 비교하면 법률적으로는 느슨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미 1898년 명치민법시행을 계기로 삼중지도의 삶이 일반 여성에게까지 강요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1900년 치안경찰법 제정 등을 통해 미성년자와 같은 수준의 정치적 권리밖에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도적 여성상으로 <양처현모><sup>11)</sup>를 낳아 강조해 가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사회

9) 有夫の婦姦通したときには二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10) 율령체제에서 국정 최고 기관. 장관은 태정(太政) 대신·좌우(左右) 대신, 그리고 훗날 그 아래에 내(内) 대신을 두었다.

11) 현모양처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여기서 양처를 앞세운 이유는 명치기 여성관리 이데올로기가 먼저 양처, 그리고 현모가 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가미시마 지로(神島次郎)는 ‘妻は夫の奴隷ではなくベター・ハーブだというヨーロッパが中世末いらいの思想が、明治中期の女性改良論によって日本に導入され、それを良半といい、この良半というのが良妻賢母と表現されるようになった’ (『日本人の結婚観』、筑摩叢書 137、1969. 202-203項)란 말을 통해 명치 중기 이전의 현모양처와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후 인용할 명치30년대 여성관리 이데올로기에 대한 다카다 치나미(高田知波)의 글을 통해서도 논자가 ‘현모양처’란 말 대신에 ‘양처현모’란 단어를 쓴 지간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

분위기를 다카다 치나미(高田知波)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양처현모’ 이데올로기는 ‘일본특유의 근대화 과정이 만들어 낸 역사적 복합체’(深谷昌志、『良妻賢母主義の教育』、黎明書房、1981)로서 혼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본질의 분석에 관해서 교육사가와 사회학자 사이에 몇 가지 설이 제출되어 있는 듯하다(中寫邦、「女子教育の体制化—良妻賢母主義教育の成立と評価—」、『講座・日本教育史 第3巻』、第一法規出版、1984). 여성의 비자립적 존재를 ‘천직’으로 하는 허구적 논리에 의해서 논리화한 이 이념의 반의어로서 상정되어진 것이 ‘악처(惡妻)’, ‘어리석은 어머니(愚母)’뿐이 아니고, ‘남편을 넘어서 지나치게 현명한 체’ 하는 ‘현처(賢妻)’와 ‘자식을 지나치게 탐애해 교육시키지 않는 온화하고 양순할 뿐’인 ‘양모(良母)’였다고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편에 대해서는 ‘현명함’을 발휘하지 않는 ‘정숙온량(貞淑溫良)’한 처(妻)로 일관하는 것이 천황제 국가의 모델로서 가문의 안정을 지탱하고, 자식에 대해서는 사사로운 정에 빠지지 않는 ‘현명함’을 지닌 어머니로서 기능하여 ‘가계(家系)’의 존속과 신민(臣民)의 육성에 헌신한다…… 이 2중의 역할 조정에 의해서 자립적 존재의 길을 봉쇄한 채 여성의 국가적 ‘유용성’을 요구한 것이 명치30년대(1897~1906)의 ‘양처현모’란 이데올로기였었던 것이다.この「良妻賢母」のイデオロギーは「日本特有の近代化の過程が生み出した歴史的複合合体」(深谷昌志、『良妻賢母主義の教育』、黎明書房、1981)として混合色的な性格を持っておりその本質分析について教育史家や社会学者の間でいくつかの説が提出されているようだが(中寫邦、「女子教育の体制化—良妻賢母主義教育の成立と評価—」、『講座・日本教育史 第3巻』、第一法規出版、1984)、女性の非自立的存在を「天職」という虚構の論理によって倫理化したこの理念のアントニムとして想定されていたのが「愚妻」「賢母」だけではなく、「夫を外にして漫に賢人ぶる」「賢妻」と「子女を唯徒に可愛がって少しも教養させない温良ばかり」の「良母」だったという点に注目しておく必要あるだろう。夫に対しては「賢さ」を発揮しない「貞淑溫良」な妻に終始することで天皇制国家のモデルとしての「家」の安定を支え、子に対しては私情におぼれない「賢さ」を持った母として機能することで「家系」の存続と「臣民」の育成に献身する……この二重の役割の措置によって、自立的存在への道を封殺したまま女性に国家的「有用性」を要求したのが明治三十年代の「良妻賢母」のイデオロギーだったのである。12)

위 글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여성이 현모에 앞서 ‘남편에 대해서는 ‘현명함’을 발휘하지 않는 ‘정숙온량(貞淑溫良)’한 처(妻)로 일관할 것을 요청받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미야와 미즈에 같은 인물은 환영받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중편 이하에서 실제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일반 독자들에게 미야는 동정의 대상으로 미즈에는 비난의 대상으로 부각된다.13) 이는 미야가 강

각한다.

12) 「「良妻賢母」への背戻—『金色夜叉』のヒロインを読む」(日本文学協会篇「日本文学」、1987年10月) 19項

13) 「합평」에서 처녀 왈(生娘曰), ‘가루타 모임에서 귀가하는 미야는 천박한 여자였지만, 중편 이후부

이치에게 구체적 요구를 표현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한 때의 잘못된 선택을 ‘회오’하는 수동적인 캐릭터로만 비춰지고 있는데 반해, 미즈에는 ‘사랑을 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라든가 ‘자신이 좋아하는 분에게 반해서 떠드니 만큼 조금도 꺼릴 것이 없는 홀몸이나 같습니다.’<sup>14)</sup>라고 하는 말을 통해 강이치는 물론 독자까지도 당황하게 하는 능동적인 캐릭터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수동적, 능동적 차이는 있을지라도 강이치를 향한 체념할 줄 모르는 집요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본질적으로 공통적인 인간적 특성을 지닌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당시의 제도적 여상상에서 벗어나 있는 ‘초명치식 여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코요는 미야의 숨겨진 욕망으로 미즈에란 캐릭터를 등장시킴으로써 ‘초명치식 여인’의 구체적인 형상을 명확히 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합평」에서 코요가 밝힌 「곤지키야샤」의 또 하나의 집필 동기인 찰나적인 힘을 지닌 황금보다 인생에서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영구한 가치로서의 사랑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점이 오히려 코요로 하여금 미궁을 헤매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코요가 이 두 사람을 통해 미야를 ‘초명치식 여인’의 구체적인 형상으로 묘사하면 할수록 그녀의 부도덕한 사랑만이 전면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 4. 연애지상주의자 강이치의 숨겨진 욕망 오시즈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코요는 「신속곤지키야샤」 이하에서 오시즈(お静)란 캐릭터를 새롭게 등장시켰던 것은 아닐까? 후편 이후 처절하게 회오하는 미야를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강이치는 처참한 모습으로 목숨을 끊는 미야에 관한 꿈을 꾸게 된다. 그 뒤 강이치는 자신의 심란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찾은 시오하라(塩原) 온천여관(清琴樓)에서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오시즈를 만난다. 오시즈는 신바시(新橋) 가시와야(柏屋)의 아이코(愛子)라고 불리는 작부(酌婦)로 미나미텐마초(南傳馬町) 고비시(幸菱)라는 종이 도매상의 지배인 사야마 모토스케(狭山元輔、이하, 사야마)와 사연이 있어 동반 자살을 기

터는 깨끗하고 덕이 높은 정조가 있는 여인으로 보입니다 (かるた会から帰りがけの宮は非常に蓮葉な女であるが、中篇後の宮は淑徳高き貞操なる婦人に見え升。成程富家に嫁したら品格は附くものかも知れませんが、これは余り違い過ぎ升。) 98項’란 구절이 보인다.

14) 成程人は夫婦とも申しませうが私の気では何とも思つてをりは致しません。さうですから、自分の好いた方(かた)に惚(ほ)れて騒ぐ分は、一向差支(さしかへ)の無い独身(ひとりみ)も同じで御座います。(続編7章) 283項

도하는 순간 강이치가 이를 발견하고 구원하여 두 사람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이때 강이치는 작부 아이코가 부호 토미야마의 마수에 걸려들어 사랑하는 사야마와의 사랑이 위기에 몰리자 토미야마를 상해를 입히고 도망쳤다는 사실과, 아이코와의 사랑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가게 돈을 횡령하여 처벌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아이코와 함께 동반 자살을 기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아이코가 부호 토미야마의 온갖 유혹으로부터 순결을 잃지 않고 사야마와의 사랑을 지키려는 점과, 사야마 역시 지물상 주인의 제안(자신의 조카 딸과 혼인을 할 경우 횡령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을 아이코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강이치는 감동한다. 돈(토미야마)과 장래보장(지물상 주인)을 거절하고 자살(영원한 사랑의 길)을 택하려고 하는 두 사람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는 강이치를 화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강이치가 왜 우는가? 그는 여색을 파는 일개 여인도,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배워서 죽음에 이르도록 이 의지하기 어려운 의리에 의지하여 지키기 어려운 절개를 지켜 종래 정조를 빼앗기지 않은 자가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울었던 것이다. 그는 이 세상에 이토록 깨끗하고 새롭고, 숭고하고 아름다우며, 높고 기품 있고 또한 너무나도 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 했던 만큼, 한번쯤은 그런 세계를 목격하고 손발이 묶인 채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듯한 흑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지금 부평초 밑바닥에 가라앉은 흙탕물 속의 빛처럼 빛나는 사랑을 보니 더 할 나위 없이 기뻐던 것이다. 貫一が涙なるか。彼はこの色を売るの一匹婦(いつひつぶ)も、知らず誰(たれ)か爾(なんぢ)に教へて、死に抵(いた)るまで尚(なほ)この頼(よ)り難(がた)き義に頼(よ)り、守り難(かた)き節を守りて、終(つひ)に奪(うば)はれざる者あるに泣けるなり。其の泣く所以(ゆゑん)なるか。彼はこの人の世に、さばかり清く新くも、崇(たふと)く優(よ)くも、高く麗(うるはし)くも、又は、完(まつた)くも大なる者在るを信ぜざらんと為るばかりに、一度(ひとたび)は目前(まのあたり) 睹(み)るを得て、その倒懸(たうげん)の苦を寛(ゆる)うせん、と心(こころ)くが如く望みたりしを、今却りて浮萍(うきくさ)の底に沈める泥中の光に値(あ)へる卒爾(そつじ)の歡極(よろこびきは)まれればなり。(「속속곤지키야사」 5장) 313項

이어서 강이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5) 「と申すのには、少し又仔細(しさい)が御座いますので。それは、主人の家の内(うち)の姪(めひ)に当ります者が、内に引取つて御座いまして、これを私に妻(めあは)せやうと云ふ意(い)향(つもり)で、前々(ぜんぜん)からその話は有りましたので御座いますが、どうも私は氣が向きませんもので、何と就(つ)かずに段々(だんだん)言延(いひのば)して御座いましたのを、決然(いよいよ)どうかと云ふ手詰(てづめ)の談(はなし)に相成(あひな)りましたので。究竟(つまり)、費消(つかひこみ)は赦(ゆる)して遣(は)るから、その者を家内に持て、と箇様(このやう)に主人は申すので御座います」 (「続々金色夜叉」 第五章) 312項

물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것이 바로 여자의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지당한 일입니다. 나는 오늘날처럼 경박하기 그지없는 이 세상에선 결코 그런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소. 그래서 만약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하고 생각했지요.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밤처럼 감동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울고 있소.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기쁩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남의 일로 생각할 수 없는 사연이 있어서 특히 이토록 감동한 것이요.勿論さう無けりや成らん事!それが女の道と謂ふもので、さう有るべきです、さう有るべき事です。今日(こんにち)のこの輕薄極(きはま)つた世の中に、とてもそんな心掛のある人間は、私は決して在るものではないと念つてをつた。で、もし在つたらば、どのくらゐ嬉からうと、さう念つてをつたのです。私は実に嬉しい!今夜のやうに感じた事は有りません。私はこの通泣いてゐる——涙が出るほど嬉しいのです。私は人事(ひとごと)とは思はん、人事とは思はん訳が有るので、別して深く感じたのです。(「속속곤지키야샤」5장) 313項

‘그것이 여자의 길’이라는 강이치의 말은 앞서 인용한 화자의 ‘그는 여색을 파는 일개 여인도,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배워서 죽음에 이르도록 이 의지하기 어려운 의리에 의지하여 지키기 어려운 절개를 지켜 종래 정조를 빼앗기지 않았’다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리라. 오시즈의 이런 마음이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사야마와의 대화에서 돈 때문에 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니 잠시 기분 나쁜 꿈을 꾸다고 생각하고 부호 토미야마에게 의탁하여 돈을 빼돌린 다음 도망쳐 나오면 어떻겠냐는 주변의 제안을 거절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녀의 그러한 마음을 확인한 사야마도 ‘정부가 되는 것을 미끼로 사기하는 것보다는 횡령하는 편이 훨씬 죄가 가볍다’<sup>16)</sup>라고 말하며 오시즈의 결정에 동조한 것이다.

신바시의 가시와라는 요정은 일종의 유곽 문화를 띠고 있는 곳이다. 그곳에 몸담고 있는 아이코는 유곽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작부다. 유곽은 본질적으로 돈과 성을 교환하는 곳이다. 돈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작동하듯이, 유곽에서 성을 파는 유녀 역시 특정 남자의 처로서가 아니라 만인의 공유물로서 공동의 환상을 손님에게 갖게 만들어야 그 상품성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유곽 문화에서 나온 <이키(粹)>나 <쿄(俠)>라고 하는 전통적 미의식도 유곽 문화의 본질적 특성(돈과 색정의 교환 장소)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코가 아무리 풋내기 작부라고 할지라도 유곽 문화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찾아 온 손님에게 그에 걸맞은 접객 행위를 해야 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인간적으로 정이 가는 사람에게 더 곱살긋게 하거나, 자신을 굴욕적으로 지배하려는

16) 情婦(をんな)を種に詐取を致すよりは、費消(つかひこみ)の方が罪は隻(はるか)に輕う御座います  
(「続々金色夜叉」第五章) 315項

권력에 반발심이 생기는 것은 유녀 또한 사람이라 인지상정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야코처럼 처신하는 것은 유곽 문화가 만들어낸 <粹>나 <俠>라고 하는 전통적 미의식에서 봤을 때 매우 이탈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 이탈적 행동을 가능케 한 것은 앞서 아이코의 말에서도 나타났듯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사랑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한 결과이다. 이를 두고 강이치는 ‘색정을 파는 일개 여인도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배워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의지하기 어려운 의리에 의지하여 지키기 어려운 절개를’ 지키고 있다고 찬미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선 실례가 되겠지만, 당신의 그 신분으로 한 남자를 정성껏 지키고, 또한 그가 영락된 것도 저버리지 않고, 한편으로는 낙적시켜주겠다는 손님도 뿌리친 채 바야흐로 꽃처럼 피어날 몸을 남자를 위해서 조금도 아낌 없이 쾌히 죽으려 하다니 참으로 훌륭한 일이요! 너무나 거룩한 당신의 그 마음가짐에 감격해서, 나는……눈물이 ……났습니다. 부디 일생동안 그 마음가짐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마음가짐은 당신의 보물입니다. 또 사야마씨의 보물이고, 당신들 부부의 보물입니다. 앞으로도 사야마 씨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죽어주십시오. 언제라도 죽는다는 각오는 언제 어디서든 꼭 간직해주십시오. 아시겠죠. 천만인 중에서 단 한 사람을 골라서 이 사람이라고 생각한 이상,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의 각오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각오가 없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생각지도 말아야 하며, 일단 마음을 먹었으면 빼가사리(舍利)가 되는 한이 있어도 그 첫 뜻을 바꾸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이 아니면 그것은 성애도 사랑도 아무것도 아닙니다!さう申しては失礼か知らんが、貴方の商売柄で、一箇(ひとり)の男を熟(じつ)と守つて、さうしてその人の落目に成つたのも見棄てず、一方には、身請の客を振つてからに、後來(これから)花の咲かうといふ体を、男の為には少しも惜まらずに死なうとは、実に天晴(あつぱれ)なもの! 余り見事な貴方のその心掛に感じ入つて、私は……涙が……出ました。貴方は、どうか生涯その心掛を忘れずにゐて下さい! その心掛は、貴方の宝ですよ。又狭山さんの宝、則(すなは)ち貴下方夫婦の宝なのです!

今後とも、貴方は狭山さんの為には何日(いつ)でも死んで下さい。何日でも死ぬと云ふ覚悟は、始終きつと持つてゐて下さい。可う御座いますか。千万人の中から唯一人見立てて、この人はと念(おも)つた以上は、勿論(もちろん)その人の為には命を捨てるくらゐの了簡が無けりや成らんのです。その覚悟が無いくらゐるなら、始から念はん方が可いので、一旦念つたら骨が舍利(しやり)に成らうとも、決して志を変へんと云ふのでなければ、色でも、恋でも、何でもありません! (「속속곤지키야사」 5장) 316項

위 강이치의 말은 어떤 발상에서 나온 것일까? 근대 이후 서구의 낭만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 연애지상주의적 사고에 대하여 하타 유조(畑有三)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성은 한 사람의 남성을 주인으로 정해서 일생 동안 그 남성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 권력의 주도 아래 국민교육의 이념 속에 넣어져, 또 법률을

통해서 제도화되어 갔던 시대적 배경을 통해 자리하게 되었다. 이런 국가 정책의 방향을 강화하기 위하여 봉건적 도덕에 있어 찬양되어 왔던 「みさお(操・節操)」 관념이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靈의 「愛」와 肉体的 「純潔」이라고 하는 관념이 첨가되면서 여성을 둘러싼 집착의 <神話>가 완성되게 된다. 女性は一人の男性を主人と定めて生涯その男性に隷属しつくすべきことが、国家権力の主導のもとに国民教育の理念の中に取り入れられ、また法律を通じて制度化が推進されて行なった時代背景に基盤を置くものだった。この国家政策の方向を強化するために、封建道徳において賞賛されてきた「みさお(操・節操)」の觀念が重ね合わされ、さらにこれにキリスト教からの靈の「愛」と肉体的「純潔」という觀念が加わってくるに及んで、女性をめぐる執着<神話>が完成することになる。<sup>17)</sup>

이렇게 형성된 연애관이 강이치에게 심어져 가시와야의 아이코라고 불리는 작부 오시즈에게까지 적용되어 전통적인 유곽의 미의식에서 이탈된 두 사람의 연애 행각까지 찬미하게 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아이코와 사야마의 사랑을 찬미하면 할수록, 강이치는 파탄된 시기사와 미야와 자신의 사랑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이런 강이치의 모습을 통해 코요는 독자로 하여금 찰나적인 힘을 갖는 황금보다 인생에서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영구한 가치로서 사랑을 절실하게 실감시키려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곤지키야샤』의 분명한 완결을 고대하는 독자들은 작가 코요에게 확실한 스토리의 방향 처리를 요구<sup>18)</sup>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독자와 끊임없이 호흡하며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신문 연재소설 작가인 코요로서는 자연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 5. 열린 구조의 결말을 지니게 된 『곤지키야샤』

찰나적인 힘을 갖는 황금보다 인생에서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영구한 가치로서 사랑을 부각시켜 ‘초명치식 여인’을 처절히 패배시킬 것인가, ‘초명치식 여인’을 부각시켜 황금보다 인생에서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영구한 가치로서 사랑을 패배시킬 것인가?

하지만 코요는 끝내 『곤지키야샤』에서 추구하려던 주제와 그것을 서사물로 전달하기 위해 설정된 인물 사이에 모순된 관계가 평행선처럼 지속되게 함으로써, 그 두 요소를 결합시켜야 할 ‘구성의 유기성’을 뚜렷이 마련하지 못했다.

요컨대, 코요는 『곤지키야샤』를 ‘사랑(愛)’의 힘을 그린 이야기로 집필하려다

17) 「紅葉文学と恋愛幻想」(「続・紅葉作品の諸相」、専修大学畑研究室、1993) 8項

18) 晩年、佐々木信綱の竹柏会に講演をたのまれ出席すると、大塚楠緒子、上田柳村夫人らの女性会員たちが紅葉をとりまいて、ヒロインお宮の運命についてひとしきり作者に聞いた(伊狩章、「紅葉の女—紅葉の女性観」、「国文学」、1974、3) 87項

보면, 또 하나의 집필동기인 ‘초명치식 여인’을 배제해야 했고, ‘초명치식 여인’을 그린 이야기로 집필하려다 보면 또 다른 집필 동기인 ‘사랑(愛)’의 힘을 제외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두 개의 집필 동기를 동시에 구현하려던 그의 고민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곤지키야샤」, 「후편곤지키야샤」, 「속곤지키야샤」, 「속속곤지키야샤」, 「속속곤지키야샤속편」, 「신속곤지키야샤」라고 하는 짜임새 없는 발표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었다<sup>19)</sup>고 생각된다. 그리고 종래 그 두 개의 집필 동기를 결합시켜야 할 ‘구성의 유기성’을 마련하지 못한 채 코요는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이로써 미완으로 남겨진 『곤지키야샤』의 결말은 독자의 손에 넘겨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러한 결과가 오히려 독자의 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여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논의될 수 있는 열린 구조의 결말을 지닌 텍스트로 전해지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 【参考文献】

- 尾崎紅葉等, 「金色夜叉上中下篇合評」 (『芸文』, 文友館, 1897年 8月)
- 神島次郎, 『日本人の結婚観』 (筑摩叢書137, 1969)
- 尾形国治, 「尾崎紅葉『金色夜叉』序論」 (国文学研究, 早稲田大学 国文学会, 1977年10月)
- 土佐亨, 「『金色夜叉』を軸尾として」 (『解釈と鑑賞』, 学灯社, 1979年10月)
- 岩井克人, 『ヴェニス商人の資本論』 (筑摩書房, 1985)
- 高田知波, 「〈良妻賢母〉への背戻—『金色夜叉』のヒロインを読む—」  
『日本文学』, 日本文学協会編 1987年 10月)
- 久武綾子, 『氏とと戸籍の女性史』 (世界思想社, 1988年)
- 畑有三, 「紅葉文学と〈恋愛幻想〉」 (『続・紅葉作品の諸相』, 専修大学, 1993年 6月)

19) 물론 「곤지키야샤상중하합평」이 행해진 시점은 1902년 6월 29일로 「속속곤지키야샤속편」의 발표가 있고 난 후다. 따라서, 위 인용문에서 이야기하는 두 개의 집필 동기가 처음 작품을 착수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집필 도중 생각한 만큼 스토리의 종결을 하기가 어렵게 되자 변명 차원에서 한 말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에 비중을 두고 논의를 전개했다.

## 要 旨

本論文では、尾崎紅葉が『金色夜叉』を未完結の状態に残さざるを得なかった理由、作家としての創作上の悩みを考察した。考察の結果、尾崎紅葉が『金色夜叉』を未完結の状態に残さざるを得なかった理由には、彼の互いに衝突する二つの作品動機が働いていることがわかった。執筆中、彼は、宮を通じて諦念することを知らない自我実現欲望を持っている<超明治式の婦人>を描こうとする一方、宮では表現し切れなかった<超明治式の婦人>像の部分を、満枝という人物を新しく宮の隠れた欲望として設定し、より鮮明なく超明治式の婦人>像を描こうとした。また彼は、貫一を通じて人間の人生において刹那的な力をもつ<黄金>より永久な力をもつ<愛>を強調しようとする一方、貫一の言説をさらに尤もらしくするため、お静という人物を貫一の隠れた欲望として設定し、刹那的な力をもつ<黄金>より永久な力をもつ<愛>を強調したストーリーとして完結させようとした。が、このような彼の作品作りには本質的に相容れない次元の異なる問題が内包されているので、いくら新しい人物を投入する労を惜しまなくても必然的に作品意図と人物設定という側面で跛行状態を齎した。要するに作家の尾崎紅葉の執筆上の悩みはそこにあり、当時の「金色夜叉」の発表状況で判るように、結局ストーリーを完結できずに不調和と破綻の足踏み状態で残さざるを得なかったのである。

キーワード：複数の構想、愛、黄金、超明治式の婦人、未完の「金色夜叉」、読者の文学的な想像力、開かれた構造の「金色夜叉」

투 고 : 2007.11.30  
1차 심사 : 2007.12.08  
2차 심사 : 2007.12.29

住 所 : (360-764)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6 청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電 話 : 043-229-8343, 011-778-1114  
e-mail : kshan@cju.ac.kr